

273억원 투입되는 광양 옛역사 공원사업 난항

박노신 의원, 신시가지와 단절 우려 사업 변경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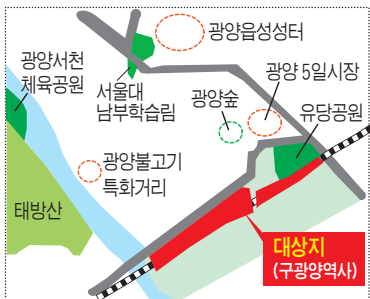
市, 전문가 참여 협의된 사업... 시의회 예산승인 요청

광양시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광양읍 재산을 위한 핵심사업인 광양읍 구 역사 공원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17년까지 무려 2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를 놓고 뒤늦게 한 시의원이 재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2009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에서 광양읍 구역사 및 폐선부지 9만㎡를 공원조성지구로 지정했으며, 이후 2012년 국

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받아 설계 용역을 추진중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쇠락한 광양읍 구역사 주변 및 폐선부지를 재생, 매력적인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양읍 구역사 일원의 공원에는 역사와 문화, 자연을 테마로 해 녹지대, 텃밭체험장, 다목적 광장, 휴게시설, 놀이시설, 잔디광장, 생태연못,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길에서 함께 만드는 삶터 디자인 사업’ 등 관련 사업도 진행중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100억원과 시비 173억이 투입되며 오는 2017년 마무리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공원조성 기본설

계 용역보고회에서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원이 공원 조성으로 인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단절되면서 미래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높다는 사업지 변경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남초 광양읍에서 경남 하동까지 녹색 로드 및 자전거 도로 조성 목적으로 공원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반대하자 변경한 전례가 있다”며 “향후 광양읍 도시개발과 상권 활성화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3차례에 걸친 디자인 검토회의에서 도심 확장보다 재개발 및 특화개

발이 추세라는 점을 감안, 구 광양역사 공원화사업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박 의원의 주장이 너무 강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원기본계획 추진 위에는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 용역 결과를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라며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추후 사업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지난해 벌교교막축제에서 교막을 채취하고 있는 관광객들.

“교막 맛따라 벌교로 오세요”

25~27일 교막축제·태백산맥 문학기행 등 다채

“토실토실 살 오른 교막 드시러 벌교에 오세요.”

늦가을남도 대표 축제인 벌교 교막축제가 25일부터 3일간 벌교읍 미리내다리 주변과 대포리 갯벌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교막 맛 따라 태백산맥 문학기행을 벌교에서’를 주제로 열린다.

벌교교막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벌교읍민의 화합을 다지는 읍민의 날 행사,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벌교가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임을 알리는 전시 행사 등이 3일간 이어진다.

첫째 날인 25일에는 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과 경찰 기마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교막을 넣은 대형교막비빔밥을 나눠먹기가 있다. 26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축하공

연 및 천상 불꽃쇼, 교막 던지기, 교막무게 알아맞히기, 교막까기, 널배 타기 등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태백산맥 문학기행, 태백산맥 OX퀴즈, 벌교읍민의 화합을 다지는 어울림, 보성소리 명창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7080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천혜의 자연 갯벌에서 채취한 벌교 교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전국 1호로 예로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강북수 벌교교막축제추진위원장은 “대회 12회째를 맞아 남도갯벌과 대한민국 문학기행 1번지라는 특색을 잘 살려 가족과 함께 하는 대표적인 체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기념 상징물 ‘여수호’ 제막식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을 개최하는 여수시에 실크로드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상징물이 건립됐다.

여수시는 22일 “이날 오후 옹천공원 일원에서 UN기구, WCO기구 관계자, 세계도시 시장단,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및 국내·외 주요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기념 상징물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대무역선 마도3호의 형상을 판상징물은 전 세계도시가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꿈과 희망, 평화를 싣고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여수호’로 명명했다.

4개의 자연석으로 구성된 상징물은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 포럼의 공식명칭과 슬로건, 참가도시의 이름을 새겼다.

두 개의 선들은 무역선의 돛을 의미하며, 원과 네모는 동양철학에서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한 ‘상징물 제막식’이 22일 오후 옹천공원 일원에서 UN기구, WCO기구 관계자, 세계도시 시장단,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및 국내·외 주요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수시 제공〉

의미하는 천지인 삼재 사상에 따른 세계와의 소통을, 주변 자연석은 섬과 항구, 오대양 육대주를, 잔디는 바다를 의미하고 있다.

한편 2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이날부터 본 행사에 들어간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은 23일까지 여수세

계박람회장에서 ‘지구촌 문명과 새로운 실크로드의 조화’라는 주제를 두고 3개 세션에 15명의 전문가가 열린 토론회를 펼친다.

김종석 여수시장은 23일 이번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여수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환경도서관 증축해주세요”

이용객 주말 500명 좌석수 130개 불과 시민 불편

지난 2008년 개관한 여수 환경도서관이 이용객에 비해 내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증축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환경도서관은 지난 2007년 4월 국·시비·기탁금 등 41억원을 들여 준공, 2008년 6월 정식 개관했다.

이 도서관의 좌석수는 130개에 불과하지만, 이용객은 주말 500명, 평일 300명 이상으로 일부 이용객들은 열람실이 아닌 강의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개관 이후 지역민의 이용은 꾸준히 늘었지만 부족한 좌석 수 등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면서 증축을 요구하는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영신(여·43)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주 환경도서관을 찾는 편인데,

공간이 좁고 좌석이 없어 매번 예를 먹는다”고 불평했다. 또 환경도서관과 시립도서관 등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해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열린 제151회 여수시 임시회에서도 ‘불편한’ 환경도서관은 도마위에 올랐다.

5분 발언에 나선 백인숙 의원은 “설립 당시 자료실과 열람실을 제대로 구분해 놓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었다”며 “인구 5만이 넘는 여·수·문·송·동 지역에 다른 도서관이 없는 특수성 등을 감안,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증축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전북

전주, 방치된 광고물 일제 정비

시민안전·도심경관 개선... 현수막·간판 등 광고주 계고절차 거쳐 철거

전주시가 시민의 안전 보호와 도심 경관 개선하기 위해 도심 내 방치된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우선 백제대로 및 서부신시가지 등 건물 벽면에 걸린 불법대형현수막에 대한 철거에 나선다.

도로변 일반현수막에 대해서는 구청 정비반을 통해 휴일 및 야간 단속으로 즉시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벽면에 걸린 대형현수막은 즉시 철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 급증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광고주에게 계고

절차를 거쳐 자진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약 80여개의 대형 불법현수막에 대해 계고 등 행정절차에 진행 중에 있으며, 계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날까지 구역별로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또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사실상 관리자가 없어 방치돼 노후된 ‘주인없는 간판’도 모두 철거한다. 광고주는 일정 규격 이상의 간판을 설치한 뒤 표시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간판으로 자진철거를 해야하지만 소형 간판 중 일부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사실상 광고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이른

바 ‘주인없는 간판’으로 도심에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시는 우선 160여개의 주인없는 간판을 내달까지 일제 정비하고, 이 기간 중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광고주 소재파와 과정을 거쳐 추가 철거하기로 했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이번 전주비빔밥축제를 비롯 명절, 문화축제 등 총 4차례의 광고물 일제정비와 풍수해 대비 등 모두 2차례 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상습적 불법 광고업주에게는 60여건 4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미당 서정주 시인 고향길 국화꽃길

제가 25일부터 11월3일까지 10일간 고향군 부안면 미당시문학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장소는 미당의 고향이자 작품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절마재로, 고향군은 주요 도로변 20km와 미당 묘소 주변에 10ha의 국화밭을 조성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지역주민 축제로 승화시킨 절마재문화축제 및 미당문학제가 25일부터 11월3일까지 10일간 고향군 부안면 미당시문학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장소는 미당의 고향이자 작품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절마재로, 고향군은 주요 도로변 20km와 미당 묘소 주변에 10ha의 국화밭을 조성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kwangju.co.kr

단 신

군산시민문화관 보수,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

군산시는 22일 “2년 가까이 매각을 추진했던 시민문화회관을 보수, 2014년 하반기에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지난 1988년 나운동 7879㎡의 터에 지하 1층·지상 3층, 좌석 858석 규모로 건립됐으나 건물 노후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내년 상반기에 문화회관을 보수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정읍시는 22일 “최근 송산동 및 쌍암동 일대에 있는 월영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내륙습지인 월영습지는 총 56만5000여㎡로, 환경부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상습적 불법 광고업주에게는 60여건 4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야생동물 1급인 구렁이, 수달과 II급인 말뚝가리, 수리부엉이를 비롯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4종 등 118과 25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한편 정읍만 환경부차관은 지난 18일 정읍을 방문해 시 관계자로부터 월영습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남원,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 30일까지 전량 수매

남원시는 22일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를 25개 단지, 534.23ha 면적을 조성해 고령지는 추석 이전 현장 수매를 완료하였고, 평야지역은 30일까지 전량 현장 수매한다”고 밝혔다.

현장수매제도는 남원시와 남원농협RPC가 주관해 수확 현장에서 수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남원참미는 현장수매 전 실시한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검사에서 대부분 최우수 결과를 받았다. 시는 내년 단지 면적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요구, 유통 환경 등을 감안해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남원참미’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남원시립국악단, 뮤지컬 ‘가인춘향’ 5개월 대장정 마쳐

남원시립국악단은 22일 “지난 6월 22일 첫 공연을 시작한 국악뮤지컬 ‘가인춘향’ 공연이 지난 19일을 마지막으로 5개월의 대장정을 끝냈다”고 밝혔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수중무대에서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공연이 거듭

할수록 관객이 증가해 1만여명이 다녔다.

가인춘향은 창극과 뮤지컬의 장점을 섞어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하고 빠른 전개, 활기찬 율동, 구체적인 서사 등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고창농기센터 ‘친환경 쌀’ 최우수... 국비 10억 지원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22일 “농촌진흥청의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명품화’사업에 공모해 1차 서류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친 결과 지난 18일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국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 확보한 예산으로 청정지역 이미지에 적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

참이다.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 농가 기술교육, 기능성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 상품 개발 및 홍보 등에 주로 배분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배경으로, 농촌진흥청의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뢰를 높였고, 고창군 전 지역이 청정하게 잘 보전되고 있는데다 유네스코로부터 그 보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분석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